

안도하던 독·한·중 코로나19 재확산 '공포'

독일 도총장·양로원 확진 급증
중국 10일만에 두 자릿수 확진
한국 클럽 '집단 감염' 발생
초기성공 방침 '예방의 역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불거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을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에서는 최근 공공생활 제한 조치가 완화된 이후 도총장과 양로원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급증했다. 독일 당국은 코로나19 재생산지수가 또 다시 1을 넘기자 재유행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재생산지수는 감염자 1명이 타인에게 얼마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지난 6일에만 해도 재생산지수는 0.6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슈투트가르트와 뮌헨 등 곳곳에서는 지난 9일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봉쇄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베를린에서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 양광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주지사들은 앞서 봉쇄령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식당과 상점, 호텔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규 축구 리그 및 학교 수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극단적으로 참사를 회피했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엄격한 조치를 따르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예방의 역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상점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산지수 증가와 봉쇄 완화조치 간의 관계성이 뚜렷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0일 이후의 확진 양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다만 이날까지 독일의 전체 누적 확진자 중 완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한 달 전보다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결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 중국에서는 이날 1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늘었다. 14명의 신규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2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지린성 수난

시에서, 1명은 후베이성 우한에서 각각 나왔다. 특히 수난시에서는 해외여행이나 감염 노출 이력이 없는 40대 여성이 남편과 세 명의 자매 등 가족 구성원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의 위험등급을 낮춘 지 며칠 만에 또다시 이들 지역의 위험등급이 상향조정됐다. 또한 지린성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확산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AP통신은 한국의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힘들게 얻어낸 성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클럽에서 34명 이상의 신규 감염이 나타났으면서 한국에서 일일 감염자 수가 30명을 넘긴 것은 한 달여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이동 제한이나 휴교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여전히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지지를 하락에 침울
가을 재발병 재선 악영향 초조"
WP "6월 정치활동 재개 열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지도 하락 등에 대해 침울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일부 참모들을 인용, 보도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석에서 재선 가도가 순탄해 보였던 자신의 운이 캠프 자체 조사를 포함,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맞상대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질 것 같은 상황으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에 대해 납득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가 율가울에 재발, 11월 대선 입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조바심을 내왔다고 익명을 요구한 참모들이 WP에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는 대외적 정치 행보를 재개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늦여름에는 발병자가 적은 지역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치 집회도 다시 열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무팀은 정치 집회 개최에 대한 예비 계획에 착수하는 한편 다음 달 고액 후원금 기부 행사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WP가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와 외곽 참모들을 인용해 전했다. 당국자들은 오는 8월 24~27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도 강행할 태세이다. 다만 규모가 축소될 수는 있다고 WP가 전했다. /연합뉴스



다시 문 연 상하이 디즈니랜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임에 따라 그동안 폐쇄됐던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1일 다시 문을 열자 관람객들과 기자들이 입장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1월 WHO 사무총장에 팬데믹 연기 요청했다"

슈피겔 독일 정보부 인용 보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코로나19의 국제적인 전염 초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게 사람 간 전염 및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경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베이징은 팬데믹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시 주석이 지난 1월 21일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요청했다고 독일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

를 인용했다. BND는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6주 낭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1월 21일은 미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첫 확진을 받은 시점이다. 1월 20일에는 우한 외의 중국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첫 환자가 나왔다. WHO는 1월 23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가 아직 이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지속해왔

다. 더구나 WHO는 팬데믹 선언도 늦게 하고 마스크 사용 문제 등을 놓고 혼란을 야기하는 등 전염병 확산 사태에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슈피겔은 온라인을 통해 이 기사가 나간 뒤 WHO가 테워드로스 사무총장과 시 주석 간에 코로나19에 대해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이번 기사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 내부에서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검열을 하고, 팬데믹 이후 경제적 관계 및 지원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의 비판을 입막음하려 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1〉 이강

이강(李綱, 1083~1140)의 호는 양계로 복건성 소무 출신이다. 북송말 왕조를 지키기 위해 금나라와의 전쟁을 이끈 명장이다. 북송 휘종 정화 2년(1112년) 진사에 급제해 관직에 나갔다. 1115년 감찰 어사와 진중시어사에 취임했으나 직언으로 파직당하고 부원외랑으로 전임되었다. 당시 북방은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다. 북송은 요나라에 빼앗긴 연운 16주를 탈환할 목적으로 금과 해상맹약을 맺었다. 1122년 송-금 연합군은 연경(현 베이징)을 함락시키고 요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요와 맺은 비밀 협약이 알려지면서 격노한 금의 태종은 북송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금의 대군은 수도

파면, 금 500만냥, 은 5천만냥, 우마 1만 마리, 비단 100만필을 요구했다. 또한 금의 황제를 백부(伯父)로 존경하고 중산, 하간, 태원의 3진 20주를 양도하며 재상과 친왕을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금은 양도를 약속받은 3진을 손에 넣을 실리적 목적으로 포위를 풀고 북으로 철수했다. 포위가 풀리자 개봉에서 다시 주전론이 일어났다. 항전파 이강의 복귀, 재경, 동관 등의 처벌을 요구했다. 금은 다시 남해해 개봉을 포위했고 북송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흠종은 뒤늦게 이강을 자정전대학사, 영개봉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호남성 창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북송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다. 휘종과 흠종은 금군에게 생포되어 북으로 연행되었다. 역사상 유명한 정강지변(靖康之變)이다.

북송 말 금나라와 전쟁 이끈 명장

인 개봉에 몰려들었고 시작은 풍전등화 상태에 빠졌다. 이강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휘종이 황제의 자리를 태자에게 양위하여 전국에서 호걸을 모집해 이들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휘종은 이강에게 조정에 나가 그 생각을 피력케 하였다. 이강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상소문을 올렸다. "폐하께서는 황태자에게 제위를 양위하여, 그로 하여금 종묘사직을 지켜내고 온 군대의 마음을 모아 오랑캐를 죽음으로 막아내도록 하십시오. 만일 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대로 따르신다면 천하가 가히 보전될 것입니다." 어개를 찔러 혈서(血書)를 적었다. 다음날 흠종이 즉위했다. 1126년 정월 금군이 황하를 건넜고 태상황이 된 휘종은 강남의 진강으로 도주했다. 양양으로 피신하도록 권의를 받은 흠종에게 병부시랑 이강은 상소에 주장하기를 "중신들이 폐하를 모시고 지방으로 달아나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직이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재상 백시중이 말하기를 "현 상황에서 도성을 어찌 지켜낼 수 있겠소?" 이강이 성벽이 견고하고 높아 지킬 수 있다고 하자 그를 동경유수로 추천해 도성을 방어토록 하였다. 섬서로 가겠다는 흠종의 뜻을 바꾸어 개봉에 남도록 하였다. 금과의 강화 협상에서 금은 이강의

남쪽으로 도망간 황실은 남경에 새로운 조정을 세웠다. 흠종의 동생으로 금의 인질이 되었던 돌아온 강왕 조구는 고종으로 즉위해 남송 왕조를 세웠다. 1127년 5월 고종은 이강을 상서우부사 겸 중서시랑에 임명했다. 그는 새로 군대 조직을 편성해 적절한 인물을 지휘관으로 삼아 금과의 전쟁에 대비했다. 그러나 왕백언, 황장준 같은 중신들은 금의 남하를 피해 동남 지방으로 피난할 것을 주청했다. 이강은 이를 반대하고 양양과 등주의 방어를 든 듯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방창 등 금에 투항한 조정 관리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청했다. 금과의 결전을 싫어한 고종과 화친파는 결국 이강을 사직케 하였다. 1139년 정월 남송과 금은 강화조약을 맺었다. 송은 스스로 신하로 칭하고 금에게 공물을 바쳤다. 다음해 망국의 한을 품은채 병사했다. 1189년 남송의 효종은 충정(忠定)의 시호를 하사했다. 주자는 이강의 사당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군왕이 있음을 알 뿐 자신의 몸은 돌아보지 않았고 천하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자신의 몸에 재앙이 미치는 것을 연연해하지 않았다. 참언으로 여러번 해촉되었지만 군왕을 사랑하고 국가를 근심하는 마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다. 가히 일세의 위인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클래식 타일 | 지중해 스타일